

외환리포트

전일동향

전 거래일대비 6.60원 하락한 1,181.20원에 마감

5일 달러-원 환율은 주요국 금리인하에 기댄 투심회복 및 롱스탑 물량 유입으로 전 거래일 대비 6.60원 하락한 1,181.20원에 마감하였다.

이날 환율은 NDF 시장의 달러-원 1개월물 환율을 반영하여 1,187.00원에 개장하였다. 개장이후 환율은 위안화 약세에 동조하며 일시적으로 상승하였으나, 곧바로 리스크 온 분위기를 반영하며 하락세를 보였다. 이후에도 주요국 중앙은행 금리인하 움직임으로 인한 투심회복을 반영하며 하락세를 보였고 롱스탑물량이 유입되면서 추가 하락하여 1,181.20에 장을 마감하였다. 시장 평균환율은 1,185.00원에 고시되었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 마감 무렵의 엔-원 재정환율은 1,100.32원 이다.

전일 달러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평균환율
1187.00	1188.50	1179.90	1181.20	1185.00

전일 엔화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1107.23	1107.23	1098.21	1106.58

금일 전망

美 워싱턴, 캘리포니아주 코로나 비상사태 선포... 1,180원 후반 중심 등락 예상

금일 달러원 환율은 미국 내의 코로나 확산 공포(확진자 221명, 사망자 12명)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현상에 1,180원 후반 중심 등락이 예상된다.

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0.20원)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증가(1,181.20원) 대비 7.70원 상승한 1,188.70원에서 최종 호가 되었다.

미국에서도 코로나19 사망자 및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다. 미 워싱턴주, 캘리포니아 주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상사태가 선포되었으며, 아마존 및 뉴욕 금융가에서도 확진자가 나오면서 바이러스 공포가 증폭되고 있다. 금일 환율은 미국내 바이러스 공포 확산에 따른 위험선호심리 훼손을 반영하며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주요국 중앙은행 및 재정당국의 경기부양책 및 엔화 강세에 따른 달러 약세는 상단을 제한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1186.00 ~ 1192.50 원

체크포인트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1458.79억원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7.70원 ↑
	■ 美 다우지수 : 26121.28, -969.58p(-3.58%)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70.91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2173 억원

주의사항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